



제8회 국회동심한마당 2012 동심의 꿈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현장 속으로

지난 5월 19일,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제8회 국회동심한마당이 개최되었다. 맑고 화창한 날씨와 푸른 잔디가 어우러진 이날 한마당에는 어린이, 청소년, 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일반 시민, 100여 개 기관, 기업, 학교, NGO 단체 등 1만여 명이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며 꿈과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에게 펼쳐진 다양한 체험행사

‘함께하는 행복품앗이’를 주제로 열린 2012 국회동심한마당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의회정치의 전당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품앗이 정신을 통해 나눔을 체험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열린 마당이다. 제8회 국회동심한마당 준비위원장인 남서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이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서 사회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심 퍼레이드, 국방부 특전사 무술시연, 동심오케스트라, 어린이 연극, 풍물놀이, 마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또한 건강검진 체험, 국회 견학, 어린이 군악대, 장애인 골프, 감사 편지쓰기, 민속놀이 등 풍성한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아이들이 이날 행사를 즐기기 위해 푸른 잔디밭에 모였다.



축사를 하고 있는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건강체험터 우리 아이 몸도 마음도 튼튼

이날 유독 부모들의 눈길을 끈 행사부스가 있었다. 바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강체험터다. 이날 건강체험터에서는 어린이에게는 치아 불소 도포 및 시력검사, 소아 체성분 검사, 성장판검사를, 부모와 일반 시민에게는 체내 일산화탄소와 폐 나이 측정 등을 통한 흡연 관련 검사와 체성분 측정, 스트레스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생교육을 위한 기생충 전시관이 운영되었다. 부모들은 내 아이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성장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 또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검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날 체험터에 아들과 방문한 한 부모는 “아들이 똥똥해도 크면서 다 키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소아비만이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국회동심한마당

국회동심한마당 행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H2O 품앗이 운동본부 이경재 이사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라며, “어른들은 아이들과 사랑으로 소통하여 꿈나무들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이 행사로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줄 아는 건강한 어린이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조한익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라며, “어른들은 아이들과 사랑으로 소통하여 꿈나무들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